

민주당 野性 회복...‘실보단 득’ 평가

본회의장 점거 초강경 전략 통해...일부선 여론 역풍 우려

민주당이 4일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지 꼭 열흘째를 맞았다.

의석수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공세에 맞서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 점거라는 초강경 전략을 택한 민주당에 대해 정치권은 ‘잃은 것 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는 중간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가 장기화된다면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는 관측이다.

◇일석삼조 효과=국회 본회의장 점거라는 초강경 대처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내부 결속, 지지층 결집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그동안의 냉소적 평가에서 벗어나고 있다. 강력한 실력행사로 10년 여당의 관성에서 벗어나 야당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태로 민주당은 내부적 결속도 강화됐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함께 뜰을 부대끼며 밤을 새는 동안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여기에 구 민주계와 구 열린우리계는 물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점거 기간동안 서로 소통의 폭이 넓어지면서 내부 결속력도 대폭 강화됐다.

이와 함께 여권과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동안 흩어졌던 지지층 결집 효과도 보이고 있다.

당장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20% 중반대로 올라서면서 30%대의 한나라당

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활동=본회의장 점거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성향도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먼저 이용섭, 조영택, 김영록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료 출신이라는 틀을 깨고 애성을 짐작했다는 평가다. 또, 부드러운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던 김효석, 우윤근, 이낙연, 유선호, 최인기, 주승용 의원 등도 이번 점거

과정에서 야당 의원으로서의 강단을 발휘했다.

실력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물격대 역할을 맡았던 강기정 의원은 이번에도 유감없는 실력(?)을 과시했으며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서갑원 의원은 현장 사령탑 역할을 똑똑히 했다. 여기에 박지원, 박주선 의원 등도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힘이 됐으며, 김재균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농성 중에 자작시 ‘인간사슬’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여론 풍향 측각=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계속하면서도 여론의 추이에 측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리하게 실력행사에 나서거나 여권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면 여론의 역풍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비폭력’을 모토로 국회 점거를 계속하는 한편, 여권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면,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장을 정상화시키고 한나라당과 법안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입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원혜영(가운데)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의 악법 저지 대전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가 변했다 왜?

리더 입지 굳히기...강경 수위 더 높일듯

‘Mr. 스마일’으로 불려온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행정법안 입법부정 과정에서 초강경파로 180도 선회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합리적 온건주의자로 꼽혔지만 연말연초 여야간 극한 대치를 거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투사형 리더로 모드를 전환한 것. 정 대표는 “MB악법”에 깔려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겠다. “민주주의 퇴행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전체 의원 중 정 대표가 최고 강경파”라는 말이 돌 정도.

한국 2일에는 여야간 행정법안 ‘가(可)합의안’을 놓고 “원칙에서 한발짝도 물러서면 안된다”며 회의석상에서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언성을 높였고, 국회 사무처의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강제해산 시도가 이뤄진 3일에는 “유신 때나

있었던 일”, “국회의장 퇴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자”는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2일에는 여야간 행정법안 ‘가(可)합의안’을 놓고 “원칙에서 한발짝도 물러서면 안된다”며 회의석상에서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언성을 높였고, 국회 사무처의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강제해산 시도가 이뤄진 3일에는 “유신 때나

있었던 일”, “국회의장 퇴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자”는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한국 2일에는 여야간 행정법안 ‘가(可)합의안’을 놓고 “원칙에서 한발짝도 물러서면 안된다”며 회의석상에서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언성을 높였고, 국회 사무처의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 강제해산 시도가 이뤄진 3일에는 “유신 때나

의 비판에 직면,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던 정 대표로선 강경 기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번 입법부정 과정을 거치며 일단 리더십 위기를 넘기고 구심력을 회복해 가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그로선 이번 기회에 아관내 리더의 입지를 확실히 죽여나가는 포석이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행정법안 강행시 장외 투쟁 등의 배수진을 치면서 당분간 강경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연합뉴스

전남도 신임 실·국장 프로필

박내영 중기지원센터본부장

정확한 판단과 뛰어난 기획력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분석능력이 뛰어나다는 평. ▲장성(54)▲성균관대, 전남대 대학원 ▲영광부군수 ▲관광문화국장 ▲행정혁신국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임영주 농림식품국장

차분한 성격으로 업무를 꼼꼼히 쟁기는



‘의유내강’형 덕장. ▲여수(49)▲건국대, 전남대 대학원 ▲농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 ▲답양부군수 ▲농정국장

정병재 경제과학국장

원만한 성품과 합리적인 일처리로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 ▲부안(52)▲육군사관학교 ▲문화예술과장 ▲진도부군수 ▲함평부군수 ▲도자비서실장

배양자 종합민원실장

섬세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폭넓은 대인관계



를 형성, 대외관계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광양(54)▲전남대 ▲후생계장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교원 ▲여성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보관

나승병 미래전략기획단장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격이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로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 ▲함평(53)▲육군사관학교 ▲보성부군수 ▲공보관 ▲감사관 ▲해양수산환경국장 ▲순천부시장

박근혜, 국회파행 여전히 ‘침묵모드’

“조용히 있는 외에 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해를 넘겨 장기화하는 국회 파행사태에 사실상 ‘침묵모드’다.

지난 2일 대구 방문에서 “대화로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원칙적 차원의 짚은 언급이 있었지만, 이 외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 법을 비롯한 행정법안과 관련한 입장표명도 극단으로 치닫는 여론을 슬슬 일고 있다.

야 대치국면에 대한 구체적 발언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류 일각에서는 당내외에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난관에 봉착한 여권을 위해 힘을 보태는 ‘한마디’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한다. ‘정치적 지도자’로서 현 정국에 대한 본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여론도 솔솔 일고 있다.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view.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비전 임용시험제도 인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시기 전문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시기 전문 <a href